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특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7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2006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업체의 손실액을 세금으로 전액 보상하고 있으나 '혈세 먹는 허마'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9억원, 2010년 352억원, 2014년

박미정 시의원 "재정지원금 매년 증가" 개선 촉구 광주시 감사위 특정감사·혁신추진단 문제점 도출

4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늘어나 11년 동안 총 4818억원이 지원됐다.

인건비 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시내버스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재정지원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규정에서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법과 환수 주체, 감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문제다"며 "운송원가 절감과 수익 증대, 시민 서비스 제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투

명한 운영을 위해 매년 용역을 발주해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정산검사와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바라 본 시각은 의혹이 있을 수 있어 감사위원회 특정감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와 별도로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노사 등으로 준공영제 혁신추진단을 구성해 매년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학생활동 거점' 전남대 대강당 젠트리피케이션 논란

2015-2016년 리모델링 후 학생 행사 급감

전남대학교 학생자치 활동의 거점이었던 '민주마루' (옛 대강당)가 젠트리피케이션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들은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지난 1975년 건립과 2015~2016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민주마루로 재탄생한 옛 대강당이 리모델링 이후 학생자치 활동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 대학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 개발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가난한 지역 예술가나 원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학생들은 시민모임에 따르면 2014~2015년 3월까지 40여차례 대관 중 4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동아리 연습이나 공연, 학생회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된 반면 리모델링 이후인 2016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는 55차례 대관했으나 학생자치 활동에 사용된 종교단체 북음 토크콘서트와 총화출발식 등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대학본부 측은 규모가 작은 용봉홀 컨벤션홀 대관을 권장했지만, 이마저도 해당 건물에서 대학원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 소음을 이유로

대관이 거부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자치활동이 줄면서 전체 대관건수도 2017년 20건, 지난해 20건으로 리모델링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행법당 상임활동가는 "비슷한 일은 학생회관 리모델링에서도 빚어지고 있으며 학생자치 활동을 이유로 세워진 예산이 점차 학생들을 기존 공간에서 쫓아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학생을 배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조를 바꿔 시설물을 학생들에게 개방해야 하고 기존 학생공간을 축소할 게 아니라 학생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대 대강당은 학생자치의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음피해 걱정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80년 전남대 총학 재건 시기에 당시 재학중이던 고(故) 박관현 열사가 발표자로 참가해 화제가 됐던 '학원자율화 공청회'가 열린 바 있고, 1977년에는 박효순 열사의 주도로 일베르 카뮈의 연극 '정의의 사람들'이 공연되기도 했다.

조인호 기자



강한 자외선, 양산은 필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햇빛을 가리며 이동하고 있다.

해외 사이버 도박 국내 총책 일당 검거

순천경찰서, 도박사이트 접속자 수사 및 중국총책 수사

순천경찰서는 150억 대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한 총책 P(42) 씨 등 일당 3명을 도박공간제공 혐의 등으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청도에 주 서버를 두고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 2018년부터 1년 4개월간 1000여명에게 1만 5000여 차례에 걸쳐 148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도박장을 개장한 국내 총책 P 씨를 도박공간제공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C(41) 씨와 Y(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총책 P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던 중 중국 본사 책임자와 연락하며 도박사이트를 새롭게 개

설해 운영하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C 씨와 Y 씨는 각각 전남 일대의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던 전남지사 관리책, 광양 도박장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유한 회사 명의의 대표통장 20여개를 이용하면서 가명으로 연락하면서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한 사람들도 수사하고 있다. 또 중국 본사 총책 및 타지역 지사를 관리하던 공범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노조, 파업 찬성

광주·전남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임금 등 차별 철폐와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사발식에 이어 다음달 3일 전국 총파업 동참을 선언했다.

17일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이날 14일까지 전국 국·공립학교 조합원 9만5177명을 대상으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8.5%가 파업에 참여해 투표자의 89.4%가 파업에 찬성했다.

광주에서는 78.5%의 투표율에 89.4%의 찬성률을 보였고, 전남에서는 77.1%가 투표한 가운데 85.9%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다음달 3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조 총파업에

적극 동참, 사흘 이상 공동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광주·전남지역 조합원 13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리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 사발식에 동참했다. 또 18일에는 기자회견, 29일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는 비정규직 종합 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비정규직이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차별은 여전하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교해 근속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병설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의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 이런판결 저런판결 ==

“법당 옮겨야 한다” 신도 1200만원 가로챈 무속인 집행유예 선고

법원 “전과 수차례…범행 죄질 안 좋다”

법당 이집을 미끼로 신도에게 돈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당 직원 B(4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동종 실형전과 2차례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14일 충북 진천군 자신의 법당에서 신도 C씨에게 "법당을 옮기려고 땅을 샀는데, 은행 대출이 하루 이를 뒤 나온다"고 속여 1200만원을 빌린 뒤 갖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5일 신도 D씨에게 정수기 연체금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법당 직원 B씨는 같은 해 4월 28일 A씨의 법당에서 D씨에게 신내림 곳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래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